

여수시, 산업부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선정

석유화학...국비 85억원 확보
공정별 데이터 분석·제어 등
탄소 배출 저감 기여 고평가
“여수국가산단 생산성 높일 것”

여수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석유화학분야 공모 선정으로 국비 85억원을 확보하면서 여수국가산단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는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12대 주력산업의 제조 공정에 AI를 결합하여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에 여수시와 전남도가 GS칼텍스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희대학교 등과 협업해 선정됐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85억원, 지방비 8억5000만원을 포함해 약 201억원 규모다.

GS칼텍스는 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구

축된 플랫폼으로 제조 전 공정별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생산조건과 생산비율로 제어하고 생산 에너지 절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중소·중견기업들이 AI 기반 자율제조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지원해 친환경 산단 환경 조성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정세와 산업여건 변화로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이 이어

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강력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여수국가산단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200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26개 선도프로젝트를 지정하여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6급 이상 공직자 대상

여수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6급 이상 공직자와 유관기관 단체장 등 69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 성평등 의식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인 선순자 강사가 맡아 △젠더기반 폭력의 개념과 예방의 중요성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조직 내 성별 고정관념 타파 △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교육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등 현실적인 사례를 다루며 성폭력 발생 원인과 피해자 보호 방안,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강의 집중도를 높였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교육이 성평등의식을 높이고, 공직 사회 내에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간부 공무원들이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찾아가는 예방 교육, 다양한 캠페인으로 폭력 없는 안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우도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고흥군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통해 오는 11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남양면 우도마을에 광역 상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남양면 우도마을의 도서지역 주민들(54세대/90여 명)은 광역 및 지방 상수 공급이 어려워 그동안 마을 자체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가뭄 시 물 부족과 염분 발생 문제 등으로 생활용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지하수가 광역상수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남양 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해상 부관 매달기 1.34km, 육상 관로 4.3km, 배수지 1개소를 정비 완료했으며, 현재 우도마을 가정 급수 내부 관로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우도마을 가정 급수 내부 관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광역 상수 시험 통수를 시행해, 그동안 먹는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 우도 도서 지역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정적이고 깨끗한 광역 상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심정우 기자



구례고 수능수험생 응원 쌀떡 전달
농협구례군지부

농협구례군지부(지부장 이성재)는 지난 29일 구례군 구례읍에 소재하고 있는 구례고등학교(교장 이상원)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2025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 대상으로 수능시험 준비 노고를 격려했다.

구례고등학교 수능수험생 70여명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쌀떡 전달식을 통해 수능대박을 기원하며 수험생들을 응원하였으며 학생과 교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성재 지부장은 “대학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관내 수능수험생 응원과 동시에 쌀 값 안정을 위한 쌀 소비촉진도 이끌어 내어 보람있는 행사를 가지게 돼 기쁘다”며 “관내 고등학교 수능수험생 모두가 쌀떡을 먹고 힘내 각자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광양시가 지난 29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10월중 제3차 현장 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 현장을 찾은 정인화 광양시장. 광양시 제공

광양시 ‘10월 중 제3차 현장 소통의 날’ 개최

광양시는 지난 29일 ‘10월 중 제3차 현장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소통의 날 방문 대상지는 △백운아트홀 앞 육교 및 금당육교 도색 건의 현장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 정비 현장 △광양시 공영 전기자전거 도입 검토 현장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현장 4개소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지난 18일 금호동 시청공감토크에서 도장이 벗겨져 시설물이 부식되고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백운아트홀 앞 육교 및 금당육교 현장이다.

정인화 시장은 민원인과 함께 육교 위 아래를 살피며 바닥판, 아치부, 난간 등 구조물의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시제정 여건을 고려해 도장 방법, 경관조명, 투입예산 등 재도장 및 야간경관 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현장 소통의 날 두 번째 방문 대상지는 오랜 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 정비 현장이다.

정인화 시장은 일부 지구단위계획 정

비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등을 검토한 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개발 여건에 맞게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한편 정인화 광양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별교꼬막축제 개최
내달 1일부터 3일간

천혜의 자연 여자인 갯벌에서 자라난 별교 꼬막을 바탕으로 제20회 별교꼬막축제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별교읍 천변에서 개최된다.

별교꼬막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축제는 ‘청정갯벌의 선물! 별교꼬막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축제 첫째 날인 1일에는 보성군 농악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도전 꼬막 비빔밥 1000인분 만들기, 꼬막 노래자랑, 명인 명창 국악의 향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저녁 6시부터 20번째를 맞이하는 별교꼬막축제를 기념하고자 진해성, 박서진 등이 함께하는 개막 축하공연과 1000여 대의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단, 안전을 고려해 우천 시 취소되거나 변경 운영될 수 있다.

둘째 날인 2일에는 태백산맥문화관 개관 16주년 행사, 조정래 작가 북 콘서트, 주니어 채동선실내악단 공연, 꼬막 노래자랑 결선을 진행하며, 저녁 6시부터는 코요태, 나상도 등의 공연이 포함된 열린음악회와 불꽃쇼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소설 태백산맥 무대 등반, 보성소리 공연, 어울마당(지역 가수 공연), 청소년 ‘끼’ 콘테스트 등으로 장식한다.

축제 기간인 1일부터 3일 동안 행사장 일원에서는 시간대별로 꼬막 무료 이벤트(꼬막 까기, 꼬막 무게 맞추기, 꼬막 경매)와 꼬막 만원 뷔페, 황금 꼬막을 잡아라 등 꼬막 관련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체험형 놀이터, 전시행사 등을 진행해 남녀노소 모두가 별교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민섭 기자



순천시가 지난 29일 순천문화 예술회관 소극장에서 ‘2024년 장애인식개선 공감콘서트&토크’를 개최했다. 순천시 제공

참여자 “기존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음악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흥미로웠으며, 장애인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에 놀랐다”며 “장애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이 해소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순천=배서준 기자